



소개잡기·고추 수확·보트타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인기

신안 비금도 용소마을 '유명세'

1박 2일 농어촌프로그램 전국 관광객 몰려 예약 동나

신안 비금도 용소마을이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을 내놔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1박2일 과정으로 개설한 이 프로그램에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온라인으로 예약하면서 신청 접수 이틀 만에 마감됐다. 비금도 용소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통테마마을로 지정된데다 뽕이섬마을로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다. 용소마을은 비금·도초도를 연계한 섬 일주관광, 야간 횡백 개 잡기, 모시조개 잡기, 붉게 익은 고추 수확

(사진) 등 참가 가족들이 농촌과 어촌 모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자원봉사에 나선 것은 물론 카약, 보트 등 해양레포츠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어린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누렸다. 비금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상적인 자연경관과 우리나라 최초 천일염을 생산했던 지역이며,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이기도 하다. 용소마을 뒷자락에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수 km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고, 모래가 굵고 단단해 차가 들어가지도 빠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목포시, 위기 가정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목포시와 이랜드복지관이 다음달 5일까지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 대상자의 추천을 받는다. 목포시와 이랜드 복지관이 지난달 위기가정 지원 사업 '인큐베이팅'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후속조치다. 인큐베이팅 사업은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치료비·생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80여 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 가구, 조손가정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음달 5일까지 해당 동 주민 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 어린이집 등 급수관 내시경 진단 서비스 호평

목포시가 옥내 급수관 내시경 진단 서비스를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19일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도 계량기 이후 옥내 급수관 부식상태 진단 및 적절한 관리요령을 16일부터 연말까지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올 상반기에 관내 초등학교 30개소와 중·고등학교 33개소를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내시경 진단 결과 시정 1건, 관리대상 5건, 수리 1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도 수도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진도서 배구심판 강습회

지난 16일부터 2박3일간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생활체육 전남배구연합회 심판 강습에 참가한 심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A·B·C급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습회에서는 A급 18명, B급 19명, C급 31명 등 모두 68명이 심판자격을 취득했다. <진도군 제공>

기자 노트

완도수고 교장의 '교육장 방문 거부'

을 초 취임 이후 이흥상 완도교육장이 관내 초·중·고 방문에 나선 가운데 이 교장의 방문을 거부해 지역교육계가 시끄럽다. 지역 교육수장이 도서 및 각 읍면을 돌아다니며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교육행정에서 반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었다. 이는 교육계에서 오래된 관례이자, 완도교육지원청으로부터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교의 교장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교장은 수산고교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그런 와중에 이 교장의 방문 거부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완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 행정편찬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도와 신안의 경우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 각종 회계 예결산 지도감독,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장이 교육감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교육장의 관내 초·중·고 방문은 위임을 받은 사항의 이행을 위해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교장은 관내 교장단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정은조 서부취재본부장

대외적으로는 최근 완도군민상 수상 과정에서 '자천'한 사실이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뒤편'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언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이익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후배 교직원 등을 먼저 배려하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교장의 당연한 의무일 텐데도 이 교장은 그렇지 못했다는 목포시가 나오는 이유다. '교육장 방문 거부'와 관련 철저한 잘못을 가려 지역교육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도=ejchung@kwangju.co.kr

해남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해남군 여성회관에서는 오는 26일부터 2013년 제3기 여성회관 교육수강생을 모집한다. 제3기 교육은 신규 개설과목으로 레드다이어트, POP에쁜글씨, 한자지

도사 자격증반, 탁구, 스코치가 마련됐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으로는 어포치, 한식조리사 실기 대비반, 영어회화, 요가 등 18개 과목이다. 교육은 9월9일부터 11월29일까지 1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해남=박희정기자 dia@

전북

부안 변산마실길 "명품길 됐다"

꽃 군락지·사진전시 등 볼거리 가득...올들어 탐방객 50만명 다녀가

부안 변산마실길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발로 걷는' 명품길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탐방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일 부안군에 따르면 들어 지난 6월말 현재 부안 변산마실길에 50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탐방객 100만명 유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코스인 새만금전시관에서 격조 있는 산사화길(2코스) 걷기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탐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테마 발굴로 걷고 싶고 한번 걸으면 또 걷고 싶은 전국 최고의 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안누리길로 선정된 부안 변산마실길은 지난해에는 올해의 걷고 싶은 길, 전국 5대 명품길로 선정됐다. /부안=정재용기자 jiv0681@

(사)변산마실길은 탐방객들을 위해 다음달 7일 오전 변산해수욕장 주차장 광장에서 고사포해수욕장에 이르는 산사화길(2코스) 걷기체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탐방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테마 발굴로 걷고 싶고 한번 걸으면 또 걷고 싶은 전국 최고의 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안누리길로 선정된 부안 변산마실길은 지난해에는 올해의 걷고 싶은 길, 전국 5대 명품길로 선정됐다. /부안=정재용기자 jiv0681@

고창 선운산 풍천장어 거리 전북 '우수외식업지구' 선정

고창군은 19일 "국내 최대 장어음식 밀집지역인 고창선운산풍천장어거리가 전주한옥마을지구 에 이어 전라북도 제2호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선운산풍천장어거리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선운산도립공원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우수외식업지구 지정을 계기로 테마가 있는 특별한 지구로서 향후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전라북도는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외식업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외식업체 비율, 매출액 규모, 외식산업관련 자격

증 소지비율, 모범업소 지정비율, 우수식재료 사용비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그동안 우수외식업지구 지정을 위해 사전 실태조사 및 자격미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격증 취득교육 실시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이번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에 공모할 예정인 군은 우수 식재료 사용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경영·조리·서비스 등 종사자 교육,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각적인 지구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30평 텃밭서 작물 심고 수확까지 전북 귀농귀촌학교 '귀농교육' 수료식

전북귀농귀촌학교가 지난 18일 정읍 농경문화체험관에서 '30평 도제식 귀농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전북귀농귀촌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귀농귀촌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귀농인 교육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겨우 주말반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해 왔다. 귀농귀촌학교는 서울, 인천, 대전 및 전북도 내 익산, 전주 등 각지에서 모인 도시민들에게 텃밭실습장을 제공하고 교육생들이

직접 작물을 심고 풀뽑기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배작물의 선정과 관리방법, 수확 후 판매까지의 실습과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 수료식에서 김생기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읍은 서남권의 교통중심지이고 수도권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과수, 특화작물, 축산 등 농업의 특성이 잘 돼있다"며 "귀농귀촌할 경우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갯벌축제 성료

여름 무더위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고창군 심원면 만들에서 열린 '2013 고창갯벌축제'에 1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렸다. 이는 지난해 6000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관광객들은 트랙터를 개조해 만든 갯벌버스를 타고 조개 캐기, 어망 체험, 풍선장어 맨손잡기, 머드체험, 조개껍질공예, 바다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겼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단신

부안군, 타지역 어민 전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부안군이 전어조업 성수기를 맞아 타 시·도 어업인들의 불법조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단속기간은 19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격포 및 위도 연안 일원에서 전북도,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구

역 위반, 부속선 어구적제, 불법어획물 유통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통해 조업구역을 위반한 타 시·도 선박은 물론 관내 선박의 불법조업 행위 적발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또는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iv0681@

정읍농업기술센터, 고추품종평가회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0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고추품종비교전시포에서 고추평가회를 갖는다. 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고품질 고추 품종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농민에게 내년 고추품종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회를 마련했다. 전시포에서는 지난 5월부터 각 중

도사에서 개발 중이거나 판매하고 있는 37품종을 식재 관리하고 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전시포에는 지난 5월 전북도 귀농인이 견학한 데 이어 무안, 인천 등 타 시도에서도 견학단이 찾은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고추재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도내 연안 6곳 내년부터 정비사업 추진

연안 침식이 발생하는 전북 도내 해안 6곳에 대해 내년부터 정비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연안관리법 개정 법률안이 최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침식 연안정비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 지난해 연안침식 상태를 관찰한 결과, 전북에서는 고창 구시포, 부안 격포·변산·위도, 군산 선유도 등 해수욕장 5곳과 위도 정금지구가 '침식 우려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주·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대, 전국 초·중·고생 음악경연대회

전북대는 19일 "미래 음악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다음달 14일 제16회 전국 초·중·고 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성악, 관악, 현악, 작곡, 피아노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참가신청 기간은 다음달 13일까지로,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전국 초·중·

고교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전북대 홈페이지(www.jbnu.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북대 예술대학 음악과 사무실 또는 우편(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64-14 전북대 예술대 신관 3층 3220호), 팩스(063-270-3737)로 제출하면 된다. /전주·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